

“아빠가 검사면 내 자식 짓밟아도 됩니까?”

아들 논란사퇴 정순신 수사본부장 광주·전남 학폭 피해자들 분노 “대법원까지 끌고가 가해 정당화” “평생 트라우마...공식 사죄해야”

“아버지가 검사면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네요. 우리 아들이 겪은 피해는 평생 가슴에 흉터처럼 남아있는데...”

광주에 거주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A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몇 번이고 가다듬었다. A씨의 아들 B군은 8년 전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가해자는 B군의 외모 특징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협박, 때로는 가족 욕도 서슴지 않았다. 신체적 폭행이 없었기에 증거를 남기기도 힘들었다. B군은 자퇴를 고민하다 스스로 전학을 선택했다. 수년이 흘렀지만,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여전하다. A씨가 ‘정순신 사태’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씨는 “아직도 우리 아들은 악몽을 꾸

는데 가해자는 뻔뻔히 잘살고 있는 걸 보면 치가 떨린다. 정순신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똑같은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지만,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분노는 전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은 2017년 고등학교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그러다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사건은 2019년 대법원까지 가고 나서야 최종 패소로 끝이 났다. 1년 후 정군은 명문대에 입학했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가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소송으로 정군의 강제 전학을 미루고, 진술까지 직접 지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사건을 접한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중학생 시절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C군의 어머니 D씨 역시 마찬가지다. C군은 현재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일로 여전히 우울증 등을 앓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씨는 “아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뉴스, 드라마 등만 봐도 깊은 우울에 빠진다”며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피해자도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들었다. 단 한 번의 폭행·폭언도 큰 충격으로 남는데... 그 피해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D씨는 정 변호사가 학폭위에서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했다. ‘맥락’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언어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C군을 괴롭혔던 가해자들 역시 ‘놀이’를 핑계로 폭력의 책임을 C군에게 전가했

다. D씨는 “사소한 장난으로 모두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는 않지 않나.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정 변호사의 말은) 그저 아들을 옹호하고 가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강제 전학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 1년여간 가해자의 전학 처분 집행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들끓었다.

C씨는 “만약바로 가해자와 분리됐다면 조금이라도 트라우마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정 변호사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정 변호사와 달리 당시 경제적 여건과 관련 지식이 부족해 자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토로했다. 일부는 반복되는 고위 공직자,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연루 소식이 무력함까지 느끼고 있었다.

황한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광주지부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사과를 하면 가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과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학교폭력의 경우 당사자보다 부모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쌍방이다’며 2차 가해를 하는 일도 흔하다. 가해자의 사과는 물론, 가해자 부모 또한 법적 보호자로서 도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감소했던 광주 지역 학교폭력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만8398명 중 1.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보다 0.6%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40.4% △신체폭행 15.3%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13.0% △사이버괴롭힘 9.2% 순으로 나타났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담양 장애인 주택 화재 사망 “지자체 사과·대책 마련해야”

장애인 단체 항의 기자회견

보호자 입원...혼자 생활 중 사망 “담양, 활동보조 안내 등 무책임”

광주·전남 장애인 단체가 최근 담양의 한 주택서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잇단 죽음은 장애인복지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가족과 개인에게 지우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49분께 담양군 대덕면 한 주택에서 발생

했는데, 당시 화재로 지체·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47)씨가 숨졌다. A씨는 같이 살던 80대 어머니가 입원해 혼자 집에 있다가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장애인에게 보호자 부재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을 지자체가 적극 안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담양군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제 공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사회서비스는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연계 자원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을 설득하고, 지원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광주·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잇단 죽음은 장애인복지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가족과 개인에게 지우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이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 신청 주의 뒤에 숨어 안일하게 방관하는 지자

체로 인해 같은 참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담양군수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안 마련 △전남 22개 시군 중증장

아인 취약 가구 전수조사 시행 등을 요구했다.

강주비 기자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봄에 떠나는 그리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